

기계는 놀아도 우리는 일한다

경제한파와 공장휴업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을 조직하고 단결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신호페이퍼 노동조합. 휴업기간 중 대시민 봉사활동과 지역선전전으로 시민과 지역여론의 호응도 이끌어 낸 활동상을 소개한다.

장현황

신호페이퍼 노동조합위원장

작년 10월 현장에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 소문은 10월 상여금 100%중 70%를 뒤로 미루는 것으로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로부터 한달 후인 11월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를 감당하지 못해 국가부도 위기를 맞았고, IMF에 구제금융 신청해야 했다. 그리고 우리 공장은 12월 18일부터 일부 생산라인을 중단하게 되었다. 이어 12월 30일부터는 전면 가동 중단으로 휴업 상황을 맞고 말았다.

불안해 하는 조합원들

노동조합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조직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상집간부와 대의원으로 구성된 속직조를 편성하여 야간순찰을 실시하는 등 비상체제로 전환하였다. '조업정상화는 언제쯤 이루어 질 것인지',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회사의 전망은 어떠한지'에 대한 조합원들의 문의는 끊이지 않았다. 노동조합도 이에 대한 시원한 대답을 할 수 없었다. 노조 역시 본사에 확실한 대책 제시를 요구했지만 어떤 분명한 대답도 듣지 못했다.

이러한 조합원들의 궁금증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차원의 확실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와 일상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여야 했다.

사업장 울타리 밖의 노조 활동

10일 간격으로 전체 조합원을 소집하여 서로간의 소식을 교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룹 및 진주공장의 사태 추이를 설명하고 외부강사 교육을 통해 IMF의 실상

을 올바르게 인식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휴업상황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인 임금은 서둘러 올라가 본와 직접 교섭하여 타결해 나갔다. 신호그룹의 사태 추이를 계속 전달함으로써 조합원의 불안감을 덜어 주기 위해 노력해 나갔다. 상집간부회의와 확대 간부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대책을 마련해 나갔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노동조합 활동이 사업장만이 아니라 사업장 밖에서도 전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1월 초 폭설로 인한 비닐하우스 붕괴로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 피해를 입은 동료의 본가에 비닐하우스 복구를 위한 대민 지원 활동을 세 곳에 스무 명이 3~4일 동안 전개했다. 일은 힘들었지만 땀흘려 지은 딸기 농사의 큰 피해를 막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사업장 안에 있는 붕괴된 천막시설물을 경비 절감을 위해 자체 보수하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노동조합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투쟁하는 조직이 아니라 어려움에 직면한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과 사회봉사 활동으로 대중과 함께 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시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활동들은 냉소적이던 지역 언론들도 관심을 보였다. 지역 언론인 '진주신문'과 '진주MBC'에서 보도

를 하기도 했다. 「진주신문」은 '기계는 놀아도 노동은 계속되고...'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고, 진주 MBC는 '일하고 싶습니다. 신호폐업피 노동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방영하기도 했다.

IMF 한파로 인한 휴업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회사 살리기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사회 봉사활동을 벌이는 등의 내용들을 보도한 것은 일상활동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동중단이 짧은 기간 안에 끝날수 있으리라는 예상은 2월 중순을 넘기면서 장기간 휴업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상화에 대한 불투명으로 조합원들은 생계확보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서게 될 것이고 따라서 조직 이탈이 우려된다. 조직이탈이 늘어날 경우 조직력 약화로 노동조합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은 장기간의 휴업에 대비하여 조직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대책을 세워 나가야 했다.

장기간 휴업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소위원회회를 구성하였다. 임금실태소위, 경영분석소위, 고용파기실태소위, 도급 및 일용직 실태소위, 불법행위소위 각 소위에서는 맡은 역할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노동조합의 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단체협약 교섭에서 쟁취해 낸 고용안정 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고용안정을 지켜 나갈 것이다.

그 동안의 일상활동으로 많이 지쳐 있는 노조간부의 사기를 높여 단결을 도모하고

노동조합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투쟁하는 조직이 아니라
어려움에 직면한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과 사회봉사 활동으로 대중과 함께 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장기간 휴업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월 23일과 24일 이틀간 확대간부 수련회를 실시하였다. 수련회에서는 '아리랑고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살아온 진솔한 이야기로 서로간의 친밀감을 가질 수 있었다. 앞으로의 노동조합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거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했으며, 시민선전전을 전개하여 우리가 처한 상황과 입장을 시민들에게 알리기로 결의하였다.

2월 26일 오후 진주 시내에서 시민선전전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대시민선전을 통해 '재벌구조개혁과 조업정상화'를 촉구하였다. '고통분담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미명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박탈당하고, 실업자가 속출하고 이를 비판하여 자살하는 등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벼랑 끝에선 나라와 이를 걱정하는 국민여론을 존중하여 총파업을 철회하는 참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고 지금 국민과 노동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정부와 재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제는 정부와 재벌이 뼈를 깎는 개혁을 실천할 때이다'는 내용을 선전했고, 집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더 큰 싸움을 준비해야

공장 휴업중에 여러 가지 노조활동을 해 오면서 민주 노총 소속 단위 사업장이 10여개 있지만 연대사업과 활동을 펴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노동조합은 체불 임금을 계속 방치할 수 없었고, 방치할 경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3월 2일 진주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다시 조합원들과 하나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튼튼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일상활동을 전개하여 잘 대처해 나간다면 이후 발생하는 어떠한 상황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